

“고객 맞춤형 최적 솔루션 공급할 것”

Interview | 이마드 수버삼텍 매니저

박천수 기자 tele_park@krtele.com

글로벌 부품회사인 삼텍(www.samtec.com)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삼텍은 1976년 설립된 보드 투 보드 커넥터 전문회사. 현재는 다양한 전자·전기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제공 하는 회사로 대폭 성장했다. 인터페이스 솔루션 분야에서는 세계 NO.1을 자신하고 있는 회사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지난 5년 전부터는 케이블사업부를 신설, 신규 시장 창출에 뛰어들었다. 케이블사업부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의료장비, 계측기 장비 등이 타깃. 고속과 고밀도 솔루션에 초점을 맞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매년 20% 이상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회사는 주로 특정 스펙을 요구하는 케이블과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터미널 솔루션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고속·고밀도 케이블 솔루션 공급

최근 방한한 이마드 수버(Emad Soubh) 고속 케이블 기술 매니저는 “삼텍 케이블 사업부의 목표는 고객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등 한국내 글로벌 반도체회사들의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주고 있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내 ATE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객 맞춤형 솔루션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터페이스 분야 토탈 솔루션을 개발해 다양한 고객들의 고속과 고전력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삼텍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에 고속 테스트용 프로브 카드를 OEM 공급하고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 장비 시장도 주요 목표 중 하나. 의료 장비 특성상 치밀한 EMI 스펙과 고속·고밀도 인터페이스 솔루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충청도 등 의료집약단지가 늘어나고 의료 장비 생산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이 분야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삼텍의 케이블 제품은 SI(signal integrity)와 PI(power integrity)를 염두에 둔 제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케이블로는 3x 시리즈 AWG가 있다. 또 Twin coax cable로는 30 AWG, Quiet Power로는 26 AWG, 로우 임피던스 케이블로는 26 AWG, 28 AWG, 36 AWG를 들 수 있다.

현재 DP(difference pair)신호의 RF 터미널을 고려한 Twinax 케이블 제품과 EMI를 충분히 고려한 Triax 케이블을 야심작으로 개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케이블을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는 커넥터 종류는 표준 고속 제품으로 각기 일세대(QI), 이세대(QII) 제품과 테스트 장비를 겨냥한 POGO, LGA, LIF 등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 파워 커넥터로는 핀 당 50A(20도 환경)를 넘는 제품까지 표준 제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마드 수버 매니저는 “우리의 강점은 표준화된 다양한 제품뿐만 아니라 맞춤형 솔루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케이블 인터페이스에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몰드물들도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에 맞게끔 제작 가능하다”며 “사용자의 제품 사용 환경과 수리, 재배치까지 섬세하게 고려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솔루션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ATE·의료장비·계측기 시장 공략

이 회사의 장점중 하나는 대부분의 솔루션을 자체 생산한다는 것. 케이블, 커넥터, 기구물 등 90% 자체 생산과 몰드물까지 인하우스 제작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다양한 디자인 요구를 즉시 반영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24시간내 견적 요청 처리, 옵션별 가격 인하 등 다양한 고객 지원 정책도 돋보인다. 삼텍 북미지사는 비숍(Bishop)이 실시한 고객 설문조사에서 커넥터업계에서 유일하게 14년 연속 고객지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입력 : 2008년 10월 06일 14:04:50 / 수정 : 2008년 10월 06일 14:05:52

[▶ 박천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back](#)

[▲ top](#)

[광고](#) [\[내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 기사를의견쓰기](#) [+ 전체의견보기](#)

[회사소개](#) | [정기구독신청](#) | [단행본 주문하기](#) | [광고게재안내](#) | [찾아오시는 길](#)



우)135-74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 로즈데일 빌딩 1605호 |
Copyright © 2004 Test&Measurement Korea All rights res